

일천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다윗

-복음으로 여는 사무엘상-

사무엘상 17:34-51, 로마서 12:20-21

정운돈 목사님

* **삼상17:34-5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었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고 낚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 **롬12:20-21**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준키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 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의문 속,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때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다. ‘급한 일’은 당연히 집중해서 처리해야 한다. 다음 주 제직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 급한 것을 빨리 집중해서 해야 한다. 저는 능수능민을 보는 친구들한테도 분지기, 초지기 하라고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하게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다. 20년, 30년 뒤를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다. 영어나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 건강을 관리

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들이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다. 지금 안 한다고 달라지지 않지만 20년, 30년 뒤를 볼 때 가장 중요하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준비하는 인생이 체질되어야 한다. 그러면 왜 이게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선진들을 통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각인되었다. 빨리 영적인 철이 드셔야 한다. 진정한 철이 드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드는 게 영적으로 철이 드는 방법이다. 요새는 나이가 30살 넘어도 애기다. 빨리 철이 들어야 한다. 제가 초등부 때 교회 혼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계속 전도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성공하면 철이 빨리 든다. 그 증거는 내가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들이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야 한다. 그럴 때 나의 성정이 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 램넛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묵상하고 겨우 양만 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양을 쳤다. 호랑이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직접 해결했다.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 일천 개의 방패다. 일천 명의 군인이 망대인 것이다. 그 사람이 중직자이고 청년들이다. 여러분이 그런 망대의 역할을 담당해야겠다. 망대를 성벽 안에 세워 성과 성전을 지키게 했다. 다윗의 망대는 다른 망대와 다르게 성전을 지키는 망대였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이 있다.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중직자였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삶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와 견고한 망대 안의 안전함을 누리는 다윗을 보았던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다. 평강의 삶이 편안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노예와 포로, 속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살림’이다. 가난과 질병 속에서 내 평강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살림’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솔로몬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봤다. 다윗은 매년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갔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강을 누렸다. 여러분들도 오직 여호와와 이름인 임마누엘의 망대 안에서 견고함과 안전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예배에 자리에 있기만 해도 성공하게 된다.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서 5년 동안 잤다고 하더라. 교회에서 피곤이 회복될 만큼 깊이 잤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10년 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렇더라도 예배 속에 있으면 성공이다. 15년 만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늘 예배시간에 헛생각을 15년 정도 한다고 한다.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응답이다.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여러분의 악을 받아주고 이해해주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친구이고 여러분의 신랑이고 왕이고 이해해주는 구원자시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서부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다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망대가 되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를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사무엘상, 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지만 분량 때문에 나누게 되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이다. 사무엘상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이다. 오늘은 사무엘서에 나타난 사탄의 망대와 하나님의 일천망대를 세운 램넛트 다윗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탄의 망대를 세운 사울 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로 사울 왕이 세운 사탄의 망대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망대였다.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의 망대가 세워지고 열등감이라는 사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면 망한다. 사울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교하고 질투하며 열등감에 빠졌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만 본다. 여러분은 복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 좋은 것과 장점만 봐야 한다. 사탄의 눈을 가지면 남의 문제와 죄에만 밝다. 다 알지만 살리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갖기 위해서 보지 않아야겠다. 결국 사울 왕 안에는 사탄의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해라.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2) 두 번째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탄의 망대를 세웠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강단말씀에 불순종하였다. 결국 사울 왕은 자신이 받은 모든 축복을 잃고 말았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함께 보겠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

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해되고, 수용되는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가만 안다고 하신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고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신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것이다. 나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기도하면 성령이 알려 주신다. 왜 가나안으로 가야하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 안다. 말씀이 내게 녹아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있다.

(3) 세 번째로 사울이 세운 사탄의 망대의 근본 뿌리는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울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신에 감사하지 못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하지 못한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분이 녹음기를 응답받았다고 갖고 왔다. 그런데 중고에 깨져있는 녹음기였다. 저는 이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작은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불평은 사탄의 망대를 낳는다. 왜 그런 체질이 되지 못할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강제로 예배드리면 교회를 떠난다. 태어나 때 잘 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갈등하고 힘들어한다. 사울 왕은 자신의 부하로 다윗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했다. 시기하고 질투했다. 좋은 일꾼이 여러분 밑에 있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경쟁의식을 느끼고 질투하고 놀랐다.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로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했다. 반면에 한나는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제사장도 존경하였다. 한나와 사무엘은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불평, 불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정받았다. 램넛트는 이래야 한다. 불평하면 절대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없다. 사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뿌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다. 불신앙은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세우게 된다.

2. 다윗이 세운 영적인 망대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다윗이 세운 하나님의 일천 망대는 복음의 망대이고 그리스도의 망대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탄의 망대가 아니고 영원히 남을 RUTC의 망대를 세워야 하겠다. 이것이 되었을 때 진정한 금토일시대, 3가지의 뜰 그리고 진정한 237나라와 5천 종족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1) 어린 다윗이 세운 첫 번째 망대는 목동생활을 할 때 영적 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어린 다윗은 단순히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은 목사님에 의해 강제로 다락방하고, 부모님에 의해 강제로 예배드리는 수준이면 안 된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성경말씀이 달아야 한다. 그리고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기능과 체력을 준비하였다. 지금의 물맷들은 AI이다. 스마트폰이고 컨텐츠들이다. 지금은 엑셀, 한글을 못하면 문맹인이 된다. 지금 그 격차가 아주 벌어지고 있다. 늦지 않았다. 지금 하면 된다. 오히려 영어나 언어들을 더 빨리 해야 한다. 과거보다 외국의 것들이 한국으로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유튜브나 영화하는 사람들은 다 영어를 잘한다. 제가 운동을 해도 중요한 용어들은 다 영어를 쓴다. 될 알고 싶어도 중요한 정보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다. 한국 사람이 가르치는 수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이제 점점 빨라진다. 후대들이 배워서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램넛트 다윗이 그랬다. 어렸을 때부터 양만 키운 게 아니다. 두달거리지 않았다. 그때 준비한 물맷들과 기술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때 준비한 물맷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물맷들을 던질 때 대중 연습한 것이 아니고 실전을 생각하면서 사실적으로 연습하였던 것이다. 또한 다윗은 악기를 연습하고 노래와 시를 작곡하였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들어갔던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다. 다윗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고 악령이 떠날 정도로 능력이 있는 연주와 찬양을 하였다. 다윗은 연주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하였다. 이때 사탄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나타났다.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다. 공부와 모든 일도 마찬가지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주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어린 시절 다윗이 세운 미래를 위한 세 가지 서밋 망대였다. 영적 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이다.

(2) 두 번째 다윗이 세운 일천망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나는 갈과 단창으로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말하였다.

다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겠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갈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3) 다윗이 세운 세 번째 망대는 자신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끝까지 용서해 주었던 참복음의 망대이다. 진짜로 믿음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 참 복음의 사람이라면 원수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의식주 즉, 먹을 것과 마실 것은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 밥 해주기 싫어도 이 말씀을 내장고에 붙이시고 밥은 주시기 바란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원수 같은 사람도 해결해줘야 한다. 포로도 인권을 보호해 준다. 교도소에서 죄수도 의식주는 해결해 준다. 지라는 말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다. 주께 맡기라는 말이다. 저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게 더 무섭다. 여러분은 선한 일만 하시면 된다. 또 세상 원리로 봤을 때는 여러분의 기준이 선하지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다. 다 이유가 있다. 어느 게 옳고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된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4) 다윗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일천망대를 세운 중직자였다. 다윗은 또한 성전건축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재정을 미리 준비한 중직자였다. 우리도 앞으로 3천 제자를 위해 응답받아야 한다. 3천 제자가 되려면 일단 1부예배 때 3천 개의 좌석이 필요하다. 지금 그러려면 빚을 내야 한다. 그게 아니다. 미리 3천 제자 성전을 지을만한 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한 군인이었고 정치인이었다. 즉, 다윗은 이러한 모델적인 전도망대의 모습을 보여준 70인 제자였고, 모델적인 장로였던 것이다. 모델적인 램넛트였고, 모델적인 청소년이었고, 모델적인 장로였고, 모델적인 군인이었다.

오늘도 3.9.3기도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첫 번째 3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한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창조와 인도와 섭리와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오력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2) 두 번째 9는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의미한다. 보좌의 축복 9가지에는 3초월, 3생명, 3전후후무가 있다. 3초월은 ① 하늘보좌, ② 시공간초월, ③ 237의 빛이다. 3생명은 ④ 하나님의 형상, ⑤ 생기, ⑥ 에넌이다. 3전후후무는 ⑦ 나, ⑧ 교회, ⑨ 업이다.

(3) 세 번째 3은 목회자시대, 중직자시대, 램넛트와 부교역자시대이다. ① 목회자시대에 목회자들은 70제자를 세워야 한다. ② 중직자시대에 모든 중직자들은 70현장에서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③ 램넛트와 부교역자시대에 이들은 70나라에 62가지 성경적인 전도가 세팅되도록 도전해야 한다. 그리고 2030-2080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다 함께 3.9.3요약기도문을 읽도록 하겠다.

(3.9.3 요약 기도문)

<3>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초월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237에 빛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체험하게 하시고 에넌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3> 목회자와 함께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중직자와 함께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램넛트와 부교역자와 함께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2024년도 올 한해도 일천망대를 세운 다윗처럼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서를 통해 다윗의 삶과 모습을 통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4년도 다윗처럼 237, 5천 종족 살릴 절대망대와 복음의 망대를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